



BRIEF

발행인 | 김영진 편집위원 | 류유선·이유라 발행일 | 2023. 3. 31.

115주년 3.8 세계여성의 날 ‘여성의 노동’을 돌아보다

1908년 3월 8일, 미국 방직공장에서 일하던 여성 노동자들이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해결, 정치적 권리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그 뒤, 1977년 유엔은 3월 8일을 ‘세계여성의 날’로 기념할 것을 결의했다. 이는 1908년 이후 67년 동안 세계 곳곳에서 여성노동자들이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투쟁을 벌인 결과였다. 한국에서는 1985년부터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기념하기 시작했고 2018년 3월 8일이 법정기념일인 ‘여성의 날’로 공식 지정됐다. 여성노동자들이 열악한 현실에 분노하여 거리에 나선지 115년이 지났다. 대전 여성들의 노동 환경은 나아졌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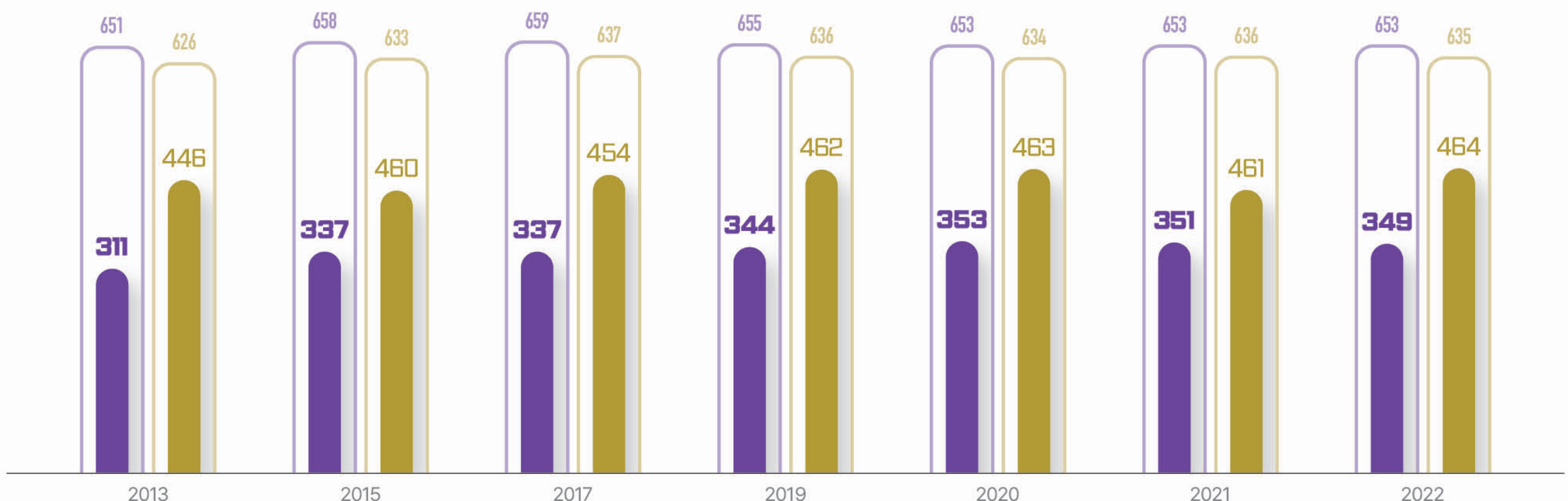
대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53.4%, 여전히 남성보다 19.7%p 낮아

2022년 대전에 사는 만 15세 이상 남성 63만5천명 중 취업, 실업의 형태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경제활동인구는 46만4천명이며, 경제활동참가율은 73.1%로 전년(72.5%) 대비 0.6%p 상승했다. 반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은 34만9천 명, 경제활동참가율은 2021년(53.7%) 대비 0.3%p 하락한 53.4%로 나타났다. 대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13년 47.8%→'22년 53.4%, +5.6%p)에 있으나 여전히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에 비해 19.7%p 낮다.

대전 경제활동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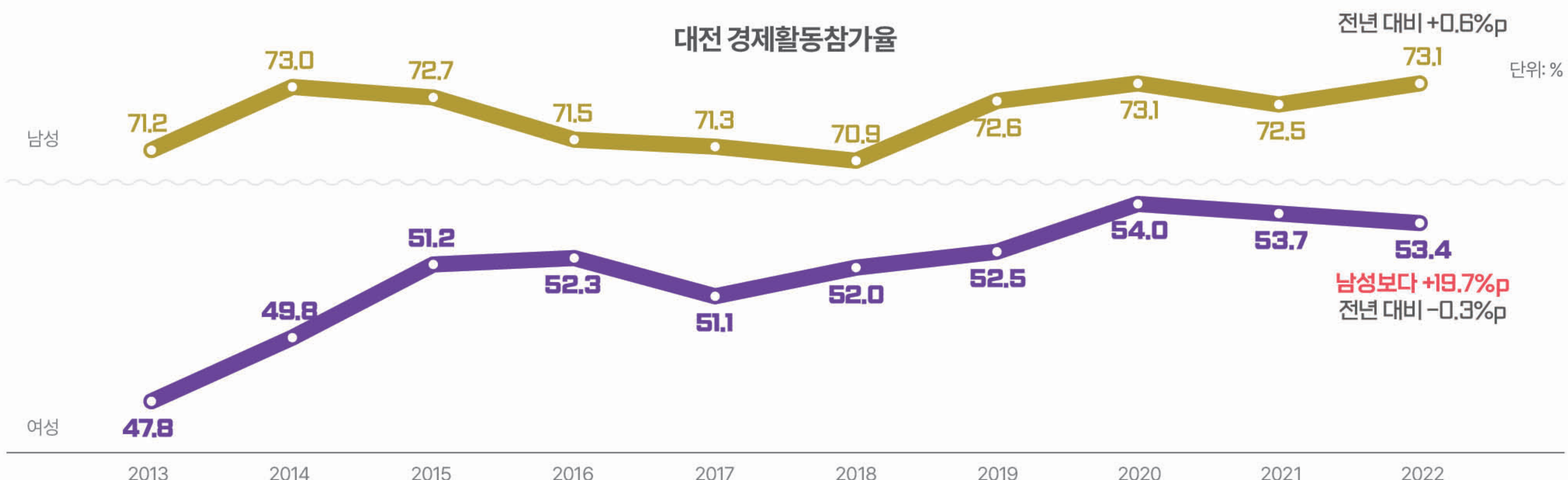
○ : 15세 이상 여성 인구 ● : 경제활동 여성인구 ○ : 15세 이상 남성 인구 ● : 경제활동 남성인구

단위: 천 명



대전 경제활동참가율

단위: %



·경제활동인구: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기간 동안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수입이 있는 일을 한 취업자와 일을 하지는 않았으나 구직활동을 한 실업자

·15세 이상 인구 중 군인, 전투경찰, 공익근무요원, 형이 확정된 교도소 수감자 등은 제외됨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15세 이상 인구)×100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성별 고용률 30대 이후 크게 벌어지고, 여성 취업자 상당수는 서비스업에 종사해

·고용률= (취업자 수/15세 이상 인구)×100

·취업자: 조사대상주간에 소득, 이익, 봉급, 임금 등의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18시간 이상 무급가족종사자, 일시휴직자도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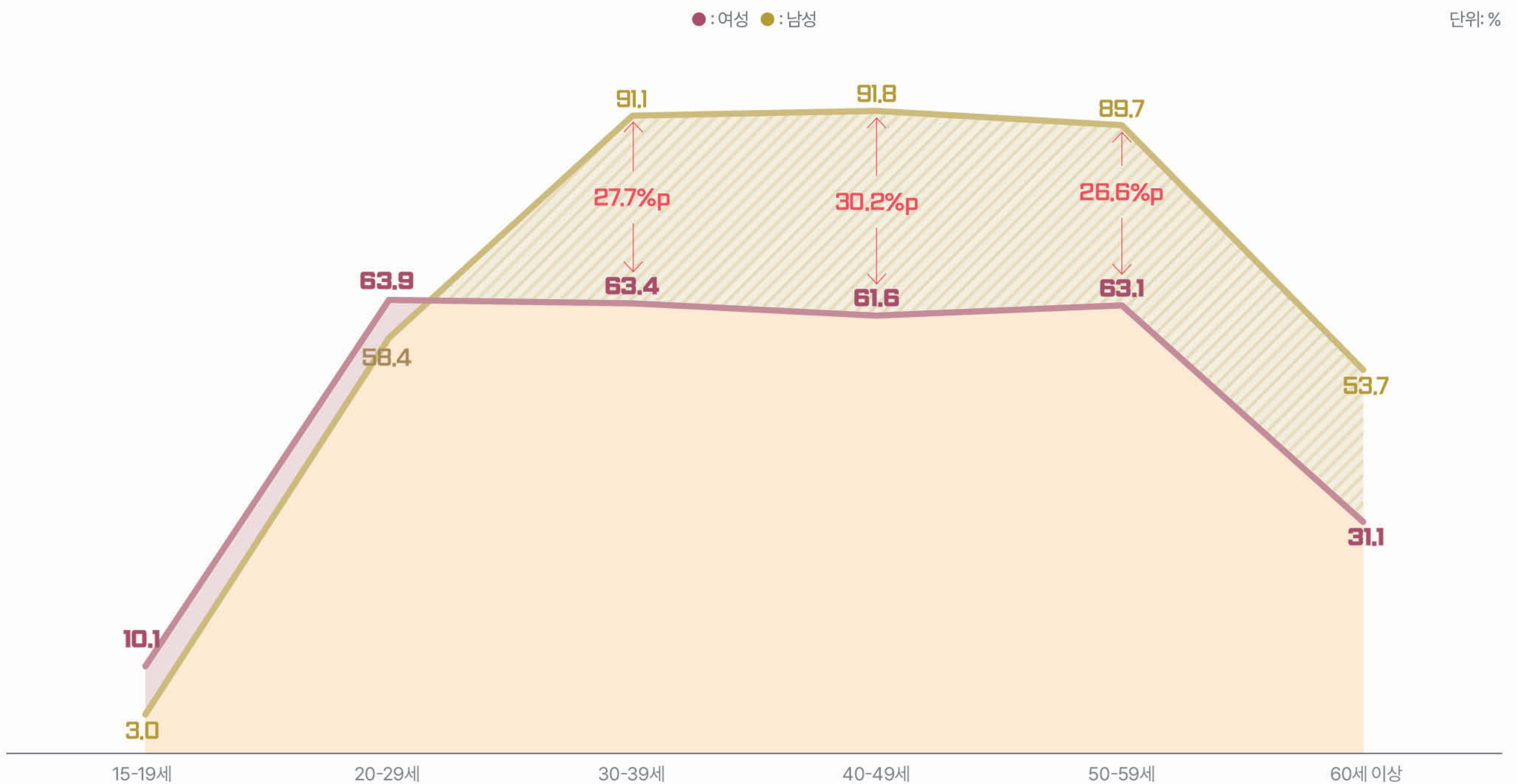
·2022년 상반기 자료임

·출처: 성인지통계시스템통계청(<https://gsis.kwdi.re.kr>)

·원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반년 주기

대전 연령별 고용률(2022)

성별, 연령별 노동시장 참여 실태를 알기 위해 생산가능인구 중 얼마나 취업상태에 있는지 파악하는 고용률 지표에 주목해보자. 2022년 대전의 여성 고용률은 15-19세 10.1%, 20대 63.9%, 30대 63.4%, 40대 61.6%, 50대 63.1%, 60세 이상 31.1%로 20대에서 가장 높은 고용률을 보였으나, 30대와 40대, 50대와 비교해 눈에 띄게 높지도 않다. 반면 남성의 고용률은 15-19세(3.0%)와 20대(58.4%)에서 여성보다 낮지만 30대 이후(30대 91.1%, 40대 91.8%, 50대 89.7%, 60세 이상 53.7%)부터, 여성과 비교해 현격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 산업별 취업자 비율(2022, 상위 5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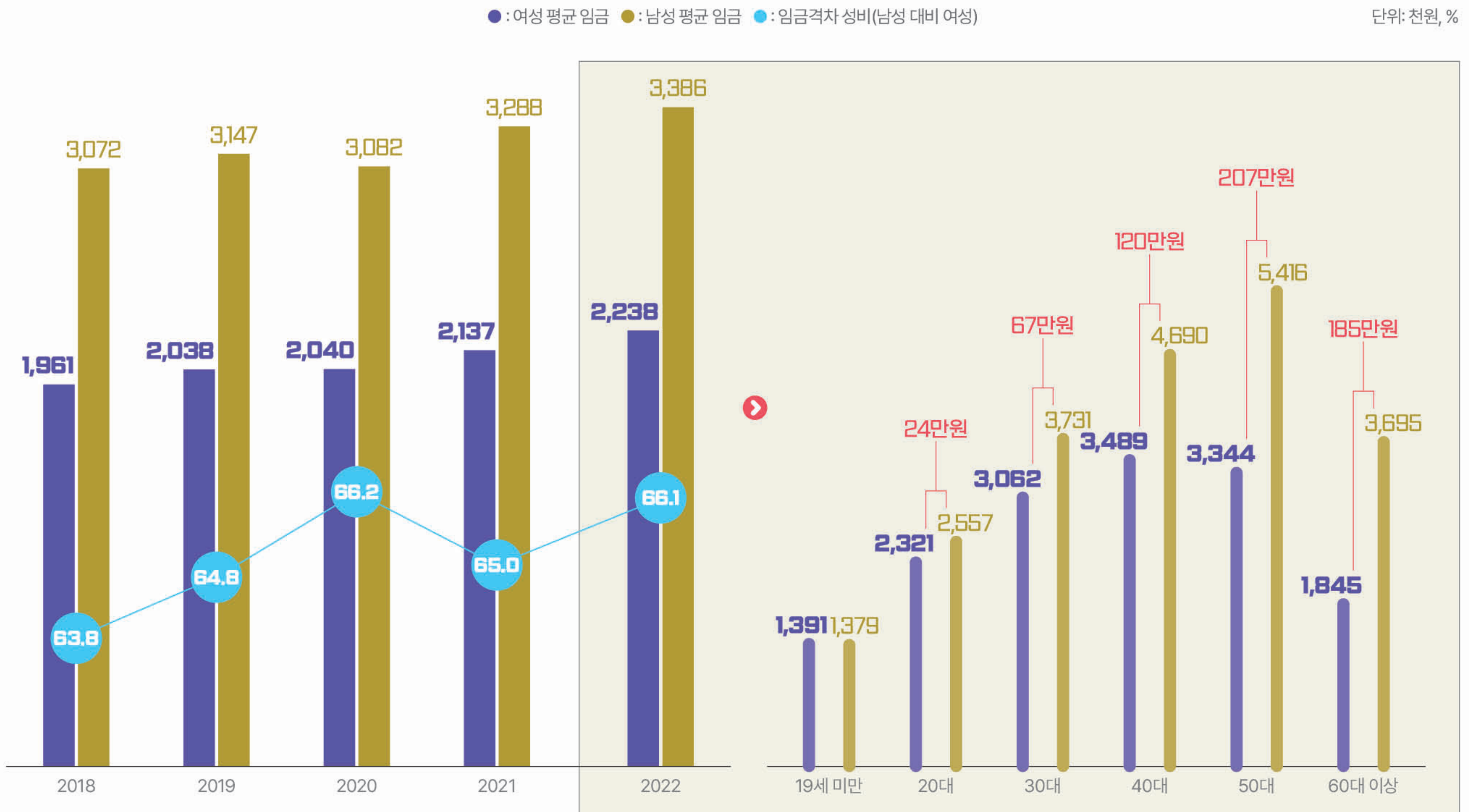
산업별 취업자 구성비를 보면, 취업분야 간 성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남성은 제조업과 건설업이 12.6%이 가장 많고, 이어서 도소매업(11.7%), 운수업(9.1%),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7%)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21.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교육서비스업(14.1%), 도소매업(11.7%), 숙박 및 음식점업(9.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6.9%) 순이다. 여성 취업자가 종사하는 산업은 대부분 서비스업에 치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남녀 임금격차 나이 들수록 커지고, 비경제활동상태에 있는 여성 69.6% '육아, 가사'로 인해 일 못해

대전 성별 임금격차

2022년 대전 여성의 지난 3개월 평균 임금은 2,238천원으로 남성(3,386천원)보다 1백1십4만원 가량 적게 번다. 임금격차 성비는 5년 전에 비해 2.3%p 오른 66.1%이지만, 여전히 60%대에 머물고 있다. 즉, 남성이 100만원을 벌 때 여성은 약 66만원을 버는 셈이다. 성별 임금격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평행선과 같은 양상을 띠고 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 24만원 가량이던 격차는 30대 67만원, 40대 120만원, 50대 207만원까지 벌어진다. 남녀의 월급 격차가 나이가 들수록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의 지난 3개월 평균 임금 / 임금격차 성비= (여성 임금/남성 임금)×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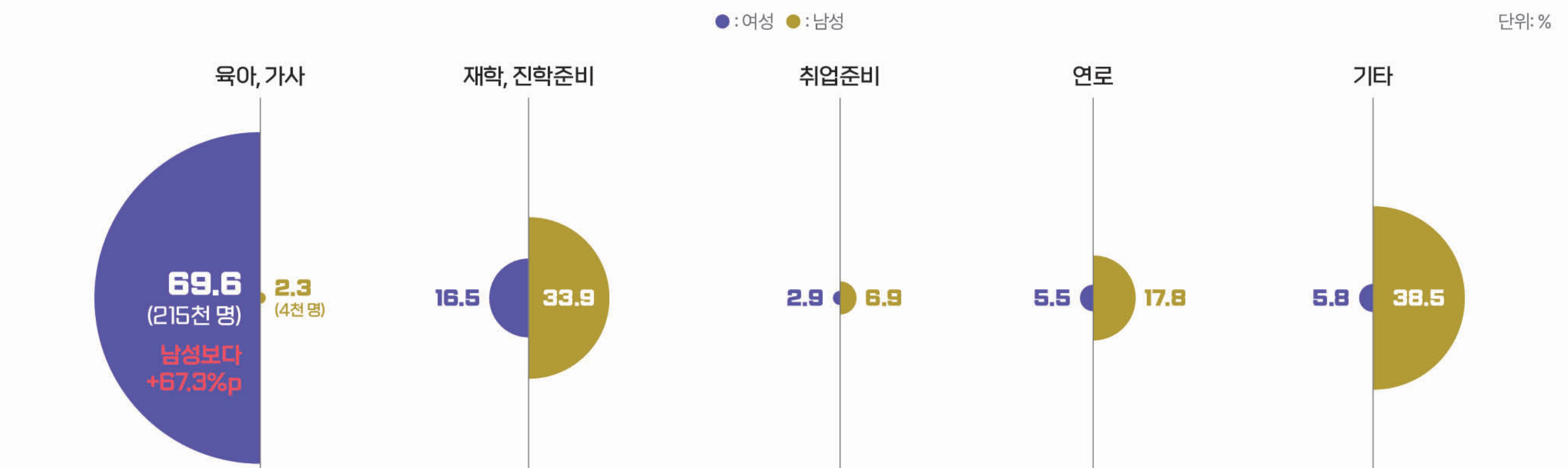
·2018~2021년은 지역별 고용조사 하반기 자료이며, 2022년은 하반기 자료가 아직 공개되지 않아 상반기 원자료를 분석함

·출처: 여성가족부, 『2021년 지역성평등보고서』

·원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반년 주기

대전 비경제활동인구 활동상태(2022)

대전의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여성은 309천명, 남성 174천명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많다. 비경제활동상태에 있는 여성 중 절반이 훨씬 넘는 69.6%가 '육아, 가사'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다음 재학, 진학준비(16.5%), 취업준비(2.9%), 연로(5.5%)가 뒤를 이었다. 반면, 남성은 '재학, 진학준비'가 33.9%로 가장 많고, '육아, 가사'(2.3%)는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했다. '육아, 가사'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남성이 4천명인 것에 비해 동일한 이유로 일을 하지 못한 여성은 남성의 53배가 넘는 21만5천명(남성보다 +67.3%p)이라는 점에서 두드러지는 차이를 보인다.



·재학, 진학준비: 정규교육기관 통학, 입시학원 통학, 진학 준비 포함
·취업준비: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통학, 취업준비 포함

·2022년 상반기 자료임

·출처: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반년 주기

#EmbraceEquity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1908년 미국 여성노동자들이 근로조건 개선과 참정권 보장 등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리증진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왔던

'빵과 장미'의 외침! 여기서 빵은 남성과 비교해 저임금에 시달리던 여성들의 생존권을, 장미는 참정권을 상징한다.

115년이 지난 2023년! 3.8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해 3월 8일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이벤트를 진행했다.

연구원 구성원들과 방문객들이 3.8 세계여성의 날과 관련된 퀴즈를 풀면서 세계여성의 날 의미를 되새겼다.

또한 2023년 소망을 적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빵과 올해 캠페인 주제인

'#EmbraceEquity'를 붙인 드립백 커피를 나눠줬다.

**3.8 세계여성의 날의 가치를 공유했던
그 뜨거웠던 현장을 함께 보실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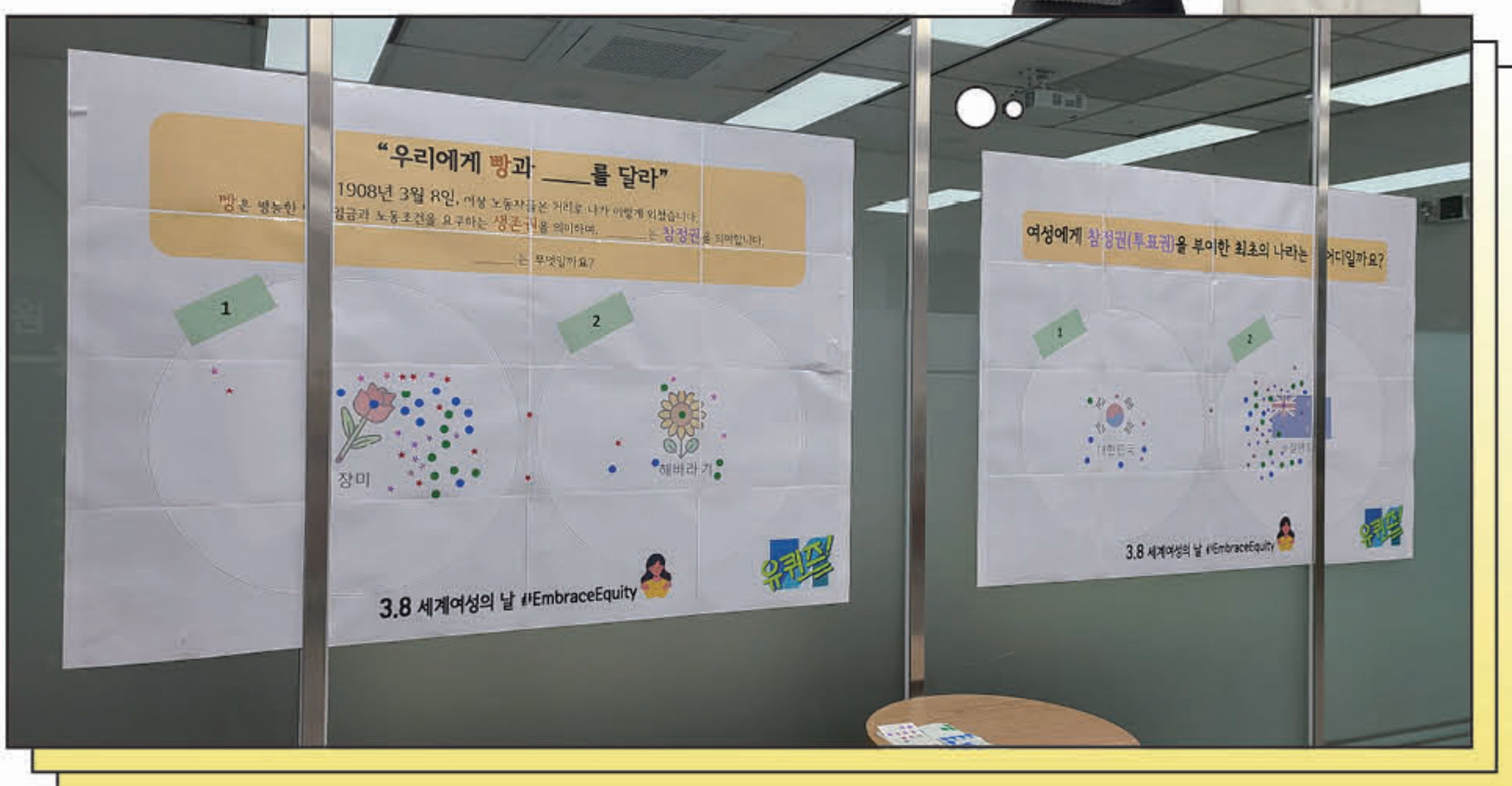
#EmbraceEquity



“소원을 말해봐”



유 퀴즈 온 더 대전연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Daejeon Gender Equality & Family Policy Center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로37(문지동) 대전세종연구원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Tel. 042.530.3548~50 Fax. 042.530.3559
본 메일은 발신전용입니다. 메일수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 수신거부를 통해 정보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